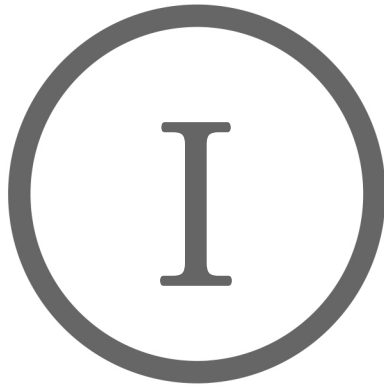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26년 경제전망 및 주요 통계

◆ 세계경제: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소폭 둔화한 성장세 유지

(IMF('25.10): '25년 3.2% → '26년 3.1%)

📌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합의 진전으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주요국의 확장적 정책기조와 글로벌 시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흐름을 유지

- 관세인상에 대비한 先수요가 정상화되고 관세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이 공급망 및 무역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계교역증가율은 크게 둔화

📌 (국가별 전망) 선진국은 1.6%('25년 1.6%), 신흥개도국은 4.0%('25년 4.2%) 성장 전망

- (선진국) 미국은 인플레이션압력 증대와 고용 둔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AI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2%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여건 완화와 국방비 등의 재정책대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낼 전망
- 미국 2.1%('25년 2.0%), 일본 0.6%(1.1%), 유로존 1.1%(1.2%), 독일 0.9%(0.2%), 프랑스 0.9%(0.7%), 영국 1.3%(1.3%), 호주 2.1%(1.8%)
- (신흥개도국)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과 수출둔화에 따른 투자둔화, 부동산 경기부진과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인해 성장세 둔화흐름이 지속될 전망이고, 인도는 강력한 내수소비와 공공투자에 기반하여 6%대 초중반은 높은 성장세 유지. 또한 국가 간 편차가 큰 비동조화를 특징으로 할 전망
- 중국 4.2%('25년 4.8%), 인도 6.2%(6.6%), 아세안 5개국 4.1%(4.2%), 브라질 1.9%(2.4%), 멕시코 1.5%(1.0%), 남아공 1.2%(1.1%)

📌 (위험 요인) 성장 하방 위험이 지배적인 상황

- (무역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불명확한 임시 양자협정이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블록화와 맞물려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에 가장 큰 하방 요인으로 작용
- (노동공급 축소 등의 구조적 문제) 고령화 및 이민규제확대 등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
- (재정·금융 취약성 결합) 둔화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고금리가 장기화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이는 누적된 공공부채와 맞물려 재정여력을 약화시키고, 빛이 많은 가계와 기업이 한계상황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 (AI 거품 가능성) 낙관 전망이 수정될 경우, 시장 조정이 발생하여 기술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 국내경제: '25년 대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나 1%대의 저성장 고착화 위험

('25년 1.0%(BOK) → '26년 1.9%(6개기관 평균)

🔍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건설투자가 반등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성장률이 상승할 전망

- (민간소비) 금리와 물가의 하향 안정화 속에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와 정부지원책 등을 통해 소비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등), 가계부채 누증,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높은 저축성향이 소비개선을 제약할 전망('25년 1.3% → '26년 1.7%)
- (설비투자) 반도체와 AI 관련 투자가 GDP성장률 이상의 투자증가율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대외 불확실성 지속, 석유화학·이차전지 분야의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인한 非IT 분야에서의 투자 위축으로 인해 '25년 대비 둔화된 성장세 전망(2.6% → 1.9%)
- (건설투자) 공공인프라·SOC 확대와 '24년도의 수주회복이 2년간의 역성장애 따른 기저효과와 맞물려 통계상 플러스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주거 및 상업용 건설 분야는 누적된 지방미분양, 부동산규제 강화, PF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8.7% → 2.7%)
- (수출) 통관 기준으로,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세 유지와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정책기조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25년의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국발 관세장벽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에 따라 소폭 감소할 전망(2.9% → -0.6%)
- (소비자물가) 내수 압력이 크지 않고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화로 인해 '25년 하반기보다 소폭 둔화될 전망(2.1% → 1.9%)
- (고용) 완만하지만 회복세에 있는 내수소비와 정부의 일자리예산 증액 등이 고용시장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예상이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美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신규고용 위축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소폭 둔화할 전망(18.0만명 → 15.8만명)

◆ 경기도: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을 전망('25년 2.1% → '26년 2.7%)

🔍 (GRDP 2.7%) AI 호황에 기반하여 반도체 부문의 생산, 수출, 설비투자가 전국을 크게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2026년 경기도 GRDP 증가율도 전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1.9%)를 상회할 전망

- AI 데이터센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D램과 HBM 시장의 급성장을 유발하고 있어, 경기도처럼 반도체 생산기지가 집중된 지역에는 비대칭적 호황을 유발할 수 있음
- (민간소비 2.0%) 금리·물가의 하향 안정화, 실질소득 증가, 정부지원책 등을 통해 소비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인구유입이나 전국을 상회하는 소득증가율 등으로 인해 전국 전망치(1.7%)를 소폭 상회할 전망. 다만 높은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 '25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매우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소매판매 양상 등을 감안할 때, GRDP 증가율보다는 낮은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됨
- (설비투자 4.0%) 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특성이 투자증가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며 전국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하고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공사도 지속되며,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 중

- (건설투자 3.1%) '24~25년 연속 마이너스에 따른 기저효과와 발주 회복에 따라 전국과 경기도 모두 완만한 반등이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GTX-C·동탄인덕원선·7호선연장 등 대형 SOC 사업과 3기 신도시 조성공사 등의 공공토목건설이 건설투자 증가율의 하방을 지지하며 전국 성장률 전망치(2.7%)를 소폭 상회할 전망. 반면 민간 건설시장은 '24~25년 착공절벽의 여파로 부진을 지속하며 하방요인으로 작용
- (수출 6.0%)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와 '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결합하며 전국의 전망치(-0.6%)와는 반대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 전년도의 높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와 글로벌 교역규모 축소에 따른 非반도체 분야에서의 수출둔화로 인해 전년도 성장률에 비해서는 소폭 둔화할 전망
- (고용) '25년도 하반기 경기도 고용시장에 전국 대비 침체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취업자 수 증가폭과 고용율이 '25년 대비 소폭 악화될 전망

◆ 2026년 전국 및 경기도 경제 전망

구 분	2024		2025		2026							
	전국	경기 ¹⁾	전국 ²⁾	경기 ¹⁾	전국							경기 ¹⁾
					BOK	KDI	KIET	KIF	NABO	HRI	평균	
경제성장률(%)	2.0	3.4	1.0	2.1	1.8	1.8	1.9	2.1	1.9	1.9	1.9	2.7
- 민간 소비	1.1	1.3	1.3	1.7	1.7	1.6	1.7	1.6	1.7	1.7	1.7	2.0
- 건설 투자	-3.3	-3.0	-8.7	-8.2	2.6	2.2	2.7	2.6	3.2	2.6	2.7	3.1
- 설비 투자	1.7	2.5	2.6	4.0	2.0	2.0	1.9	2.0	1.7	1.5	1.9	4.0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1.0	3.0	2.5	3.1	3.4	-	-	3.1	-	3.2	2.5
경상수지(억달러)	990	-	1,150	-	1,300	1,037	675	1,070	900	680	944	-
수출증가율(%) ³⁾	8.1	24.4	2.9	8.3	1.4	-1.6	-0.5	-1.1	-1.0	-1.0	-0.6	6.0
소비자물가(%)	2.3	2.3	2.1	2.2	2.1	2.0	-	1.8	1.9	1.9	1.9	1.9
취업자증가(천명)	16	7.9	18	5.2	15	15	-	15	16	18	15.8	4.9
고용률(%)	62.7	64.1	62.9	63.9	62.9	-	-	62.9	62.8	-	62.9	63.8
실업률(%)	2.8	2.6	2.8	2.6	2.8	2.8	-	2.9	2.9	3.0	2.9	2.9

주 : 1) 2024~26년의 경기도 경제성장률은 관련 실물지표 및 GDP의 실적과 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

2) BOK(2025.11)의 예측치를 사용.

3) 통관 기준.

자료 : BOK(2025.11), KDI(2025.11), KIET(2025.11), KIF(2025.12), NABO(2025.9), HRI(2025.9).

II

경기도 주요 통계

◆ 경기도 주요 경제지표('25.11월 기준)

통 계 명	경기도		전국합계 또는 평균	시도 순위	기준 시점	발표 기관	비 고	
	지 표	전국 비중(%)						
인구(등록외국인 포함)	1,421만명	26.9%	5,272만명	1위	'25.8월	행안부	서울 959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594조원	24.7%	2,404조원	1위	'23년	통계청	서울 548조원	
1인당 GRDP	4,307만원	-	4,649만원	8위	'23년		울산 8,124만원 서울 5,826만원	
경제성장률	1.1%	-	1.4%	12위	'23년		인천 4.8%	
지역총소득(GRNI)	660조원	27.0%	2,446조원	1위	'23년		서울 620조원	
1인당 GRNI	4,790만원	-	4,731만원	4위	'23년		서울 6,599만원	
교역액	교역규모(누계)	2,478억불	25.1%	9,890억불	1위	'25.9월	무역협회	서울 1,945억불
	수출액	1,269억불	24.4%	5,197억불	1위	'25.9월		충남 1,269억불
	반도체	498억불	41.6%	1,197억불	1위	'25.9월		충남 331억불
	대중국	348억불	36.9%	942억불	1위	'25.9월		충남 118억불
	수입액	1,208억불	25.7%	4,693억불	2위	'25.9월		서울 1,429억불
고용	경제활동인구	8,020천명	26.9%	29,788천명	1위	'25.9월	국가 데이터처	서울 5,461천명
	여성층	3,481천명	26.1%	13,321천명	1위	'25.9월		서울 2,583천명
	취업인구	7,834천명	26.8%	29,154천명	1위	'25.9월	국가 데이터처	서울 5,253천명
	여성층	3,421천명	26.1%	13,086천명	1위	'25.9월		서울 2,496천명
	고용률	70.7%	-	70.4%	8위	'25.9월	국가 데이터처	제주 70.4%
	청년층	47.1%	-	45.1%	4위	'25.9월		서울 48.2%
	여성층	55.8%	-	63.8%	9위	'25.9월		제주 65.9%
	실업률 ¹⁾	2.3%	-	2.1%	9위	'25.9월	국가 데이터처	경남 1.8%, 전남 1.9%, 충북 2.0%
	청년층	5.1%	-	4.8%	15위	'25.3분기		제주 4.3%
	여성층	1.7%	-	1.8%	9위	'25.9월		제주 1.0%
취업자수 증감	7천명	2.2%	312천명	1위	'25.9월	국가 데이터처	충남 44천명 서울 4천명	
전통시장수	160개소	-	-	-	'25.1월	소진공	-	

주 1) 실업률 순위가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음을 의미함

통 계 명	경기도		전국합계 또는 평균	시도 순위	기준 시점	발표 기관	비 고
	지 표	전국 비중(%)					
산 업	중소기업	221.7만개	26.7%	829.9만개	1위	'23년	중기부 서울 169.6만개
	소상공인	211.0만개	26.7%	790.7만개	1위	'23년	
	벤처기업	12,278개	32.1%	38,216개	1위	'25.9월	중기부 서울 10,905개
	투자유치 금액 (FDI신고실적)	1,586백만불 (535건)	7.7%	20,651백만불 (2,783건)	2위	'25.3분기	산업부 서울 6,773백만불 (1,165건)
	산업단지	204개소	15.1%	1,347개소	2위	'25.8월	국토부 경남 1위 (210개)
	공장등록	78,938개	35.8%	220,233개	1위	'25.9월	한국산업 단지공단 경남 20,845개
창 업	창업기업	31,602개	31.17%	101,751개	1위	'25.4월	중기부 기술창업 5,601개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1%	-	2.1%	-	'25.9월	통계청 '24년 2.3% '23년 3.6%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5%	-	2.5%	-	'25.9월	통계청 '24년 3.7% '23년 3.8%
금 융	가계대출 <예금취급기관>	312.1조원	23.7%	1,317.8조원	2위	'25.8월	한국은행 서울 449.6조원
	주택담보대출	229.6조원	25.9%	886.4조원	2위	'25.8월	
	기업대출 <예금취급기관>	374.1조원	19.8%	1,893.2조원	2위	'25.8월	한국은행 서울 740.4조원
	중소기업대출	344.0조원	22.4%	1,535.5조원	2위	'25.8월	

◆ 경기도 중소기업 현황 ('23년 기준)

분야	구분	지역	전체 (A+B+C)	중소기업				대기업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전체산업	사업체수	전 국	8,309,696	7,906,861	8,163,704	135,211	8,298,915	10,781
		경 기	2,218,905	2,109,725	2,179,472	37,178	2,216,650	2,255
		(%)	26.7	26.7	26.7	27.5	26.7	20.9
	종사자수	전 국	23,767,377	10,899,947	14,672,736	4,444,913	19,117,649	4,649,728
		경 기	5,956,638	2,927,378	3,967,320	1,127,009	5,094,329	862,309
		(%)	25.1	26.9	27.0	25.4	26.6	18.5
매출액	전 국	73,591,237	12,776,045	18,093,504	14,919,041	33,012,545	40,578,692	
	경 기	16,257,784	3,612,750	5,215,009	4,092,386	9,307,396	6,950,388	
	(%)	22.1	28.3	28.8	27.4	28.2	17.1	
제조업	사업체수	전 국	616,664	545,963	598,431	15,265	613,696	2,968
		경 기	199,561	172,745	193,368	5,348	198,716	845
		(%)	32.4	31.6	32.3	35.0	32.4	28.5
	종사자수	전 국	5,030,155	1,233,705	2,436,522	957,817	3,394,339	1,635,816
		경 기	1,698,435	431,005	876,408	329,049	1,205,457	492,978
		(%)	32.4	31.6	32.3	35.0	32.4	28.5
매출액	전 국	25,540,899	2,195,331	4,308,889	3,877,445	8,186,334	17,354,565	
	경 기	7,498,582	820,464	1,637,721	1,297,715	2,935,436	4,563,146	
	(%)	29.4	37.4	38.0	33.5	35.9	26.3	
여성 경영인	사업체수	전 국	3,373,276	3,287,455	3,349,894	22,771	3,372,665	611
		경 기	897,835	874,918	891,397	6,330	897,727	108
		(%)	26.6	26.6	26.6	27.8	26.6	17.7
	종사자수	전 국	5,692,005	4,240,588	5,009,023	525,639	5,534,662	157,343
경 기		1,485,082	1,118,196	1,325,225	137,496	1,462,721	22,361	
(%)	26.1	26.4	26.5	26.2	26.4	14.2		